현불 논단

스몸비와 조고각하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스마트폰 좀비' 사회문제 대두
좁은 시야 인해 안전사고 야기
지난해 117건… 5년 간 증가세

경찰청 '바닥 신호등' 시범운영
효과 입증되면 9월부터 도입돼

절집 디딤돌에 '조고각하' 문구
자리 정갈 · 현재 상황 점검 의미
스마트폰에 삶을 저당 잡혀서야

스마트폰으로 인해 야기된 건강 문제는 크게 몸 문제, 마음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스마트폰을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보면 근시가 될 수도 있고, 눈 깜박임이 줄어들어 안구건조증도 생긴다. 거기에 잘못된 자세로 인한 '거북목', 손목이 저리고 감각이 저하되는 '근육 이상 손목', 그리고 강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닮은 뇌'로 몸살을 앓게 된다. 좀 더 심해지면, 감정교감 저하로 인해 타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수면 장애로 인한 피로도 증가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보태어, '스마트폰 좀비(Smartphone Zombie)' 즉 '스몸비(Smombie)'라는 신조어로 지칭되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여 주위를 보지 않거나 좀비처럼 자기 마음대로 걷는 보행자들이 스마트 폰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로 등장했다. 스마트폰에 얼굴을 고정한 보행자는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좁은 시야 각도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들은 안전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길을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다가 차 앞까지 걸어가는 스몸비들과 이에 놀라 울리는 경적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과 부딪치거나 보도 위의 기물들과 충돌하는 광경이 빈번하게 목격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5년 사이 1.5배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바닥 신호등 시범 운영안'을 통과시키고, 여러 곳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에 이르렀다. 시범 운영에서 '바닥 신호등'의 효과가 입증되면 올해 9월쯤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신호 장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절집에서도 바닥을 제대로 못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지 신발을 벗어 놓는 자리에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글귀를 써 놓았다. "발밑을 똑 바로 보라"는 뜻으로, 신발 벗은 자리를 정갈히 하라는 의미와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대중 생활 중에 무언가에 정신이 팔리면 신발이 어지럽다. 고무신 한 짝이 날아간 만큼 정신도 먼 곳을 헤맨다. 그러면 무언가에 부딪치고 다치고 대중들에게도 날카로움을 드러낸다. 신발의 상태가 거울이 되어 마음의 현 주소를 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스님들이 행각이나 탁발에 나설 때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말고 늘 자기를 살펴 조심하라'는 경계의 뜻으로 삿갓을 썼다고 한다. 또한 스님들이 지팡이에 작은 고리를 달아 소리가 나도록 해서 들고 다닌 이유가 길을 갈 때 미물이라도 혹여 밟힐까 염려해서였다고 하고, 산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났을 때 부축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안으로 지혜를 추구하고, 밖으로 나로 인해 누구라도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된다는 친절과 배려의 마음이 스님들의 소지품을 통해 드러난다.

〈연소경(S35.26)〉에서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과 마음이 불타고 있으니 일체가 불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스마트폰에 눈이 불타서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정신은 이미 마비가 되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리 저리 부딪치며 온 세상의 민폐로 등극한 자신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지금 바로 발밑을 챙겨 "마음 바탕인 성품을 자금 이곳에서 바로 확인"하지는 못할지언정 스마트폰의 종이 되어 눈을 저당 잡히고 마음을 볼모잡히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겠다.

社說

문상의례 통일할 공청회 열자

불교 문상의례 절차가 공식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스님과 재가불자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많은 교단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쉬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편함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영단에 절을 2번 해야 하는지, 3번 해야 하는지부터 스님들이 재가불자 영단에 절을 해야 하는지, 또 탈상 전후의 영가 위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공의를 모아 해결해야할 난제가 쌓여 있다.

불자라면 으레 영단에 3번을 절하는 것이 마땅해보인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례는 유교적 관습을 따르고 있고, 불교의 3배 의미가 영가에게 적절한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몇몇 경전서 볼 수 있는 비구와 비구니, 재가불자의 자격에 대한 차이까지 두드러져 한 목소리로 절차를 정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조계종 의례실무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다만 위원회 내에서도 의견 합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마련해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역시 한 번의 공청회로 해결될 순 없다. 꾸준히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관혼상제와 같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필수적으로 거치는 의례의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의 절차가 완성되면 사람의 관념과 인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중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부디 불교계 문상 현장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불교적 가르침과 현대사회의 관습을 잘 아울러 통일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N포세대 관심, 포교의 시작

한때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시대 흐름을 혁신했던 세대가 이젠 취업과 연애, 결혼과 출산, 내집마련, 심지어 대인관계까지 포기한 'N포 세대'가 됐다. 한 세대 진단 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 1990년대 청년세대는 대중문화를 이끄는 신세력이었다. 이런 청년세대가 어느새 '좌절의 아이콘'이 된 것이다. 꿈꿀 자격조차 박탈당한 이들에게 불교는 어떤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취업을 위한 청년세대들의 모습은 노량진을 비롯한 고시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닐까. 최근 사단법인 자비명상에서 노량진 고시촌에 마음충전소를 개소하고 고시생들에게 주먹밥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마음챙김에 나서고 있다.

고시촌 골목에서 불안감 속에 기본적인 삶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이들이 처한 상황이다. 자비명상과 같이 이른바 N포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들의 고민, 그리고 고통을 공감할 때 이들은 부처님 법 아래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음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다가가야 한다. '혼밥족'들을 위한 간편한 음식 개발, 젊은 세대를 위한 카페 및 사찰쉼터 운영, 각종 불교계 아르바이트 알선, 불교명상을 통한 위로, 장학재단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희망과 열정의 이미지가 무색하게 그 어느 세대보다도 생활고에 허덕이며 낙담하는 세대가 됐다.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지만,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작지만 다양한 실천이 필요할 때다.

독자 투고

안성 영평사의 혜진 스님과 인천 호불사의 붕원 스님이 자신의 시작(詩作)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짧은 해설과 함께 게재한다. 앞으로도 독자 제호의 많은 문예 작품 투고를 바란다. 〈편집자 주〉

永坪寺

잔바람에
솔가지 부딪는 소리가
은은한 향기로 전해온다.

스님!
염불 소린
산새들 잠들게 하고

스님!
법문 소리에
山 짐승들은
걸음을 멈추고
人間으로의 환생을
꿈꾸는
그곳!
수미산문 永坪寺

수묵화 한 폭처럼
허허롭고 아름답다.
누가 그린 그림일까?

正林스님!
신심으로 이룬 도량
포클레인을 몰고
땅을 파고, 고르고, 다듬
는다.
설계하고, 짓고,
못질하고
行으로 무진법문 하는 듯
고고하다.

통일신라 화랑들이
무예를 연마하던 곳
춘추공과 김유신의 얼이
깃든
이곳!
경기도 안성땅
수미산문 永坪寺



혜진 스님 안성 영평사

안성 영평사는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역으로 신라 화랑들이 무예를 연마하던 곳이다.
눈 오는 날 사찰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하다. 대체 누가 그린 그림이기에 이리도 허허롭고 아름답단 말인가.

심전(心田)에 씨앗을 뿌리시오

님의 말씀이 생고(生苦)이고 고멸(苦滅)이니
삼라만상이 무상인 것을…
그리도 망상을 쌓고 헤매이는
너의 자견심(自見心)은 어디로 가고 있는고?
차라리
마음 밭에 씨 뿌리고 오려! 오려 오려!
어미 소 몰고 밭갈이나 하려무나.
정성껏 가꾸면 푸르고 푸른 들녘은
금빛 나는 황야가 되고
광명의 씨앗을 거두게 될 걸세
그 씨앗으로 오복지심(五福之心) 만들어
천석꾼이 되면 불국토(佛國土)에
씨앗을 뿌려나 보시구려!



붕원 스님 인천 호불사

부처님은 '고집멸도(苦集滅道)'를 요체로 한 사성제를 통해 '삶은 고통임을 알고, 수행을 통해 번뇌를 끊어 자유로워지라'고 하셨다. 마음 밭에 선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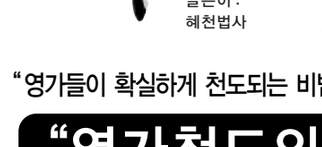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